

## 폐가스 활용해 난방용 온수 생산

대전열병합발전이 6월3일부터 대전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잉여 소화가스(메탄가스)를 활용한 온수 생산에 들어간다.

대전시는 2012년 12월27일 하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소화가스 중 가열 처리에 필요한 가스 외에 폐기되는 하루 4670입방미터의 잉여가스를 대전열병합발전이 판매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.

대전열병합발전은 폐가스를 활용해 보일러를 가열한 뒤 공급관을 통해 서구 둔산지역 아파트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게 된다.

대전시는 2013년 매각할 가스량이 170만입방미터에 달하고, 연평균 2억원 이상의 수익과 함께 2080톤CO<sub>2</sub>(이산화탄소톤)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특히, 역점 추진하고 있는 <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>이 연말에 완공되면 소화가스 발생량이 하루 1만입방미터 정도 증가해 수익이 4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최능배 맑은물정책과장은 “폐가스 활용 사업은 수익 창출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3/06/03>